남가주동신교회

가 정 예 배 지

2026년 11월 다섯째주

도입 기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3.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4.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1.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In lowly paths of service free;
Tell me Thy secret, help me bear The strain of toil, the fret of care.
2. Help me the slow of heart to move By some clear, winning word of love;
Teach me the wayward feet to stay, And guide them in the homeward way.
3. Teach me Thy patience; still with Thee In closer, dearer company,
In work that keeps faith sweet and strong, In trust that triumphs over wrong.
4. In hope that sends a shining ray Far down the future's broad'ning way,
In peace that only Thou canst give, With Thee, O Master, let me live.
Amen

본문 요한복음 6:5-8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John 6:5-8

5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6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7 Philip answered him, "Eight months' wages would not buy enough bread for each one to have a bite!" 8 Another of his disciple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poke up

설교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약 15,000명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 앞에서 행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보여 줍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도 부족함 가운데 풍성한 잔치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 충만함을 가져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요 6:5)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해결책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어린아이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필요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내어 드림으로써 그 아이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원,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력함만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사이에 서 계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연약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원, 꿈, 심지어 연약함과 깨어진 모습까지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설교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is the only miracle of Jesus, apart from His resurrection, recorded in all four Gospels. Counting women and children, the actual number could have been as many as fifteen thousand people. With such a multitude of witnesses, this miracle powerfully reveals who Jesus is. Just as Jesus turned water into wine at Cana, His first recorded miracle in John's Gospel, Jesus once again brings a feast where there is scarcity. He is a God of abundance who brings joy, satisfaction, and fullness into our lives. When Jesus saw the great crowd approaching, He asked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John 6:5). Jesus already knew what He was going to do, but He asked this question to teach His disciples an important spiritual lesson. He was not looking for their solution but preparing them to become channels of His power. How, then, can we become channels of God's power? First, until we recognize our own powerlessness, we cannot become channels of His power. A little boy had only five loaves and two fish, but he surrendered what he had to Jesus. What seemed insignificant in the face of such a great need became more than enough in the hands of Jesus. By giving up what little he had, he became part of something far greater than he could have imagined. We often live under the illusion that we are in control of our lives. We depend on our abilities, resources, and plans. However, it is when we acknowledge our limitations and surrender ourselves completely to God that we become available for His work. As God said to Paul,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2 Corinthians 12:9). Second, we must believe and trust that God's power is for us. Recognizing our powerlessness alone can lead to despair, but recognizing our powerlessness in the light of God's love leads to faith. Jesus is the mediator between our human weakness and God's infinite power. Through the cross, Jesus willingly became weak so that we might receive the riches of God's grace. Therefore, we can surrender ourselves to Him without fear, knowing that His power is exercised for us out of His love. God is not looking for people who are powerful in themselves but for people who are willing to depend entirely on Him. What are you still holding on to? What are you afraid to surrender to Jesus? Whatever little you have—your abilities, resources, dreams, or even your brokenness—place it in His hands. When we sincerely confess, "Lord, apart from You, I am nothing. Be my everything," we open our lives to His mighty work. The Christian life is not about becoming powerful but about becoming a channel through which God's power flows.

나눔질문

1. 가나의 혼인 잔치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인생의 부족함과 결핍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Like the wedding at Cana or the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share a moment when Jesus met your lack with abundance and restored your joy.

2. 예수님은 답을 이미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질문하심으로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최근 내 삶의 막막한 문제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묻고 계신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Jesus asked Philip a question to train his faith, even though He already knew what He would do. What question do you think Jesus is asking you through your current challenges?

3.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기 위해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What is one practical step we can take this week to live as a channel of God's grace and power in our home and daily life?

마침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for teaching us through Your Word today to acknowledge our limits and trust fully in Your unfailing love. Carry us through this week as instruments of Your abundant grace,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